

5개월 끌어온 동료의원 3명 동반 사퇴서

나주시의회, 처리 '고심'

의원들 "사퇴서 반려" "처리 강행론" 팽팽

의정활동비·수당은 매달 250만원씩 수령

나주시의회가 사퇴서를 둘러싼 3명의 의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토론토에 빠졌다.

이들 의원들의 사퇴서를 반려해 이란다는 둘정론과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서 5개월째 이들 의원들에게는 매달 각각 250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문성기·정찬걸 의원과 통합진보당 임연화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5월24일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한 '의무부담 동의안' 가부 결정을 표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퇴서를 제출했다.

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퇴처리를 주장한 7명의 의원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사퇴서 제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에게 공식사과한 후 사퇴서 반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놔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기형적인 의회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나 의장단이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양측 눈치만 보고 있다는 불편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퇴서를 제출해 의정 활동을 전제 하지 않고 있는 이들 의원들에게는 매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258만5000원씩이 지급되고 있어 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원들이 몇 번의 간담회를 가졌으나 사퇴서를 반려해 의회를 정상화 시키자는 의견과 사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이들은 "당시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무소속 의원들이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직을 사퇴했었다.

이에 따라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의무부담 동의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통과됐다.

이후 14명의 의원 가운데 3명이 사퇴하면서 반쪽의회로 전락하는 등 갈등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원들이 몇 번의 간담회를 가졌으나 사퇴서를 반려해 의회를 정상화 시키자는 의견과 사퇴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가족과 함께 하는 갯벌 바지락 캐기

최근 여수시 소리면 사곡리 갯벌노을마을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너른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부터 돌산을 울림리 돌산갓장터마을 등 농촌전통테마마을 2곳을 육성하고

/여수시 제공

탈북미녀와 함께하는 강동 버라이어티 쇼!

나주시 만납니다.

A CHANNEL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곡성효문화축제, 푸짐한 경품도 있어요"

TV·자전거·전기그릴 등 추첨…계란 저가판매

기차마을전통시장 상인들 관광객 위한 이벤트

"축제 즐기고 경품도 받아가세요."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제13회 곡성효문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상인들이 경품행사를 마련했다. 특선품도 저렴하게 내놓을 예정이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상인회는 2일 "이번 축제에 곡성을 찾는

150만원 상당 등 푸짐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경품행사의 추첨권은 축제기간인 3일 장날, 토요장날과 경품당일 장날까지 시장 내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주무대에 있는 추첨함에 제출하면 된다.

백태순 상인회장은 "이번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날에 많은 관광객이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강진 혈통 송아지 경매시장 개장

한우개량사업 '청신호'

강진군에 혈통 등록이 된 송아지만을 대상으로 한 경매시장이 개장됐다. 한우개량을 통한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강진완도축협은 2일 "지난달 30일 강진군 군동면 흐계리에 자리한 강진우시장에서 혈통우 송아지 전자경매 시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사진〉

한우사육농가와 이날 경매에 송아지를 출품한 농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장식에서 강진원 강진군수는 "송아지 경매시장 개장 등 시군에 앞서는 한우육성 제도 정착으로 강진군의 한우개량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50마리의 혈통등

록 송아지가 출품돼 이 중 40마리가 전자입찰을 통해 새로운 주인 품에 안겼다.

경매시장에 나설 수 있는 혈통우 송아지는 10개월 이하, 150~300kg의 체중 등에, 어미 소의 이력정보와 브루셀라검사 등 쇠고기 이력제 제출 후 이에 대해 검증이 완료돼야 한다.

군은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인 '강진착한한우'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강진완도축협의 한우개량사업을 위한 한우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우량 송아지 중 능력개량용 씨암소 활용 등에 농가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문화축제
내일부터 이틀간
인형극·문화기행 등

제1회 '전남 장흥문화축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장흥군은 2일 "전국 최초로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된 장흥군의 천관문화관에서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축제마당을 열어 문학 애호가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판을 벌인다"고 밝혔다.

축제 첫날인 4일에는 예우문화기획이 마련한 '샌드에니메이션'과 국단 '꼭두'가 준비한 인형극 '요절복통·춘향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장흥공공도서관이 참여하는 '칠교놀이', 정남진 도서관이 준비한 '나만의 가방 만들기' 등도 마련됐다.

이튿날인 5일에는 '문화기행'을 떠난다.

이청준의 소설을 이야기보따리로 실은 문학기행 버스는 천관문화관을 출발해 이청준 생가와 이청준의 소설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한 '선희동'을 들려 만발한 메밀꽃밭에서 꽃향기를 채우고 나서 소설 '당신들의 천국'의 배경지인 고흥 소록도로 향한다. 문의 천관문화관(061-860-0457). /장흥=김용기기자 choul@